

해방된 땅에서 일어나 부활의길로 출정하라!



◇판화:「영정귀」 공동창작 「해방광주」

이기기 전까진 죽을 수 없네

황 지 우 <시인>

1989년 5월13일 전대병원 영안실,
5월 가랑비 내리는데
추억같은 가랑비
슬픔이 너무 크면 울을 아주 작듯,
속으로 속으로 짜리러진 호느낌처럼
꼭박박 애비한 분노의 숨결인 떨림처럼
호린 광주(光州), 빛 없는 빛고을, 그 막막한 지평에
가랑비는 내리는데
민주조선 깃발 들고 우리 진군했네
민주조선 녹두군외어
죽을 양으로, 죽인 양으로

아, 이철규(李哲猷)
우리 형제, 우리의 내일
우리의 살덩어리, 우리의 역사
얻어터지고 찢기고 뜯기고 통통부풀어
물위에 떠올랐네
한몸의 죽음으로, 온몸의 죽임으로
아 이, 철, 규 어찌할거냐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를 어떡하나

장승담, 동학군의 땅, 그 땅에 태어나
 땅으로 살고, 죽어 땅으로 되는 조선 농자(農者)의 아들
 땅이 갈라지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땅이 가무는 조선 농자의 아들
 그 야문 얼굴 새까맸구나
 그 눈빛 서늘한 눈, 아름다운 눈, 차마 볼 수 없게 눈갈 뒀
 어나와

허연자위 굼아버린 동공 무섭게 치뜨고
호린 하늘 노여워 깔보는구나
그 억센 젊은 몸, 검붉게 물들었고
피땀들어 군데군데 피부가 벗겨지고
손등의 껍질은 완전히 뜯겨졌어라

아 잔득 울먹이는 하늘이여
차마 볼 수 없어 비구름으로 몸을 감춘 무등산이여
다시금 오월 그날, 그날들과 밤들이 다시오고
그날들과 밤들로 하여 떠난 영혼들
가득 실은 기차로 남광주(南光州)로 밀고 들어오는 길고
눈은 기적소리

윤상원에서 이철규까지 이들 이름사이 더 많은 셀 수 없
는, 이름없는 이름들이여

죽음 다음엔, 죽인 다음엔
살아남은 자들, 산자들에 싸움이라고 말하는구나
살이 싸움이라고
쌈이 살이라고 말하는구나
아 죽기전까지 여겨야하리
이기기 전까진 죽을 수 없으므로
이기기 전까진 죽을 수 없네
민주조선 하나될 때까지

[illegible]

대학원 (지) 962-7117

1989학년도 후기

제 10회 통일문제에 관한

학술논문현상모집

1. 제출자격: 본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2. 논문제목: ㉠실현 가능한 통일방안의 모색
㉡북방외교의 진전과 통일정책
㉢러려지향적 민족공동체의 청사진
3. 논문매수: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4. 상 금: 최우수작(1편) - 30만원
우수작(1편) - 20만원
가 작(2편) - 각 10만원
5. 응모마감: 1989년 5월 27일
6. 참고사항: ㉠우승된 논문을 중심으로 본교에서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며 우수논문을 선정, 전국대학생 통일논문전시모집에 제출할 것임 (각 계 시판, 국토통일원 공고 참고)
㉢본 연구소의 자료도 참고로 이용 가능함
7. 문의처: 본교 부설 한국지역문화 연구소 (본관 206호)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한국 지역문제 연구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 [illegible]

되살아나라 광주호이며!

양캠퍼스 총학, 총필기주간 선포 망월묘역참배·모의 광주청문회등 행사예정

서울·용인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이번주부터 광주항쟁 계승주간으로 선포하고 18일(목)을 총필기일로 설정하는 등 오늘(16일)부터 연일 집회와 각종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 총학은 이미 어제(15일) 오후 3시 연인원 해방광장에서 거행한 '광주항쟁계승주간 선포식' 및 이원규사건 고문살인 진상규명 결의대회에서 이날부터 오는 5월23일(화)까지를 '5·18광주민주화 항쟁 계승주간'으로 선포했다.

또한 이날 오후5시 대학원104호에서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를 열고 5월 평행항쟁 대대적 준비, 민주주의학교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부총학

생회장 김시진(법·법학4)은 5월평행항쟁에 대해서 '이원규 살인사건 고문살인 진상규명 결의대회'를 대동하여 참여유동 등 이후 일정을 통해 5월평행항쟁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를 비상체로 전화하여 임시로 총학생회장이 전제부총장부장을, 각 단대·과회장이 부총장 부총장부장을 맡게되며 이기간을 집회는 각 단대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용인 총학도 어제 오후2시 해방광장에서 '5월평행 계승 및 대대적 투쟁준비'를 열고 급우

들은 '광주항쟁계승 및 학살자 대수 처단을 위한 의대인 총필기 투쟁주간'으로 선포했다.

이날 집회에서 총학생회장은

원칙(사·경·제3)은 이원규 살인사건과 관련 '더이상 젊은이들이 정권의 폭압에 의해 숨지

수 없다'며 '제2의 6·10투쟁을 성사시켜 노동자 정권을 몰아내고

자주·민주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했다.

양캠퍼스 계승주간 일정은 다

양과 같다.

망월(화) 오는5월20일(토) 모

현에서 열릴 예정이다.

학생들의 친목도모와 대학학

회의의 창조를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평행항쟁은 19일(금) 전야

제, 20일 마당놀이, 장기자랑,

초청가수공연등의 행사로 진행

된다.

서울 '고전기타반'

신입생환영연주회

서울캠퍼스 '고전기타반'은

지난 5월11일(목) 오후6시 대

학원105호에서 '89학년도 신입

생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

날 연주회에서 다들 밝게 노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날 연주

회는 '발레'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한편, 오는 공청회와 관련 동·서양어문대 각과의 수업이 4교시 이후 전면휴강 된다.

서울학생생활연구소 '정신건강·강연회' 서울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는 오는 5월18일(목) 오후2시 본관 108호에서 '노이로제'의 이해와 정신건강의 증진, '성'의 정신분석'에 관한 강연회를 실시한다.

이날 강연회에는 김정희(연세대 신경정신과) 교수주최로 ▲인간의 갈등과 스트레스 ▲일상생활의 불안·변동·공허감의 원인 ▲인간의 삶을 위한 지혜 등 4가지가 다뤄진다.

한편, 오는 공청회와 관련 동·서양어문대 각과의 수업이 4교시 이후 전면휴강 된다.

서울 '고전기타반' 신입생환영연주회 서울캠퍼스 '고전기타반'은 지난 5월11일(목) 오후6시 대학원105호에서 '89학년도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날 연주회에서 다들 밝게 노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날 연주회는 '발레'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한편, 오는 공청회와 관련 동·서양어문대 각과의 수업이 4교시 이후 전면휴강 된다.

서울학생생활연구소 '정신건강·강연회' 서울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는 오는 5월18일(목) 오후2시 본관 108호에서 '노이로제'의 이해와 정신건강의 증진, '성'의 정신분석'에 관한 강연회를 실시한다.

이날 강연회에는 김정희(연세대 신경정신과) 교수주최로 ▲인간의 갈등과 스트레스 ▲일상생활의 불안·변동·공허감의 원인 ▲인간의 삶을 위한 지혜 등 4가지가 다뤄진다.

한편, 오는 공청회와 관련 동·서양어문대 각과의 수업이 4교시 이후 전면휴강 된다.

서울 '고전기타반' 신입생환영연주회 서울캠퍼스 '고전기타반'은 지난 5월11일(목) 오후6시 대학원105호에서 '89학년도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날 연주회에서 다들 밝게 노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날 연주회는 '발레'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가곡' '가곡' '가곡'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대학원 탄압음모를 규탄한다”

중앙대에서 전대기원 기자회견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는 지난 5월10일(수) 오전9시 중앙대교 본관3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원 탄압음모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정경철 교수 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대기원

의장 김은규(중대신문편집

장)은 '정경철은 동의대사건이

후 대학원 탄압을 예고하면서

대학원 탄압을 예고하면서

대학원 탄압을 예고하면서

대학원 탄압을 예고하면서

대학원 탄압을 예고하면서

대학원 탄압을 예고하면서

대학원 탄압을 예고하면서

대학원 탄압을 예고하면서

대학원 탄압을 예고하면서

대학원 탄압을 예고하면서

대학원 탄압을 예고하면서

대학원 탄압을 예고하면서

대학원 탄압을 예고하면서

대학원 탄압을 예고하면서

대학원 탄압을 예고하면서

대학원 탄압을 예고하면서

대학원 탄압을 예고하면서

대학원 탄압을 예고하면서

대학원 탄압을 예고하면서

여기 통일이루어 드디어 한겨레 이룰때까지

——제3기 전대협 출범식과 광주투쟁의 거리를 찾아서



▲제3기 의장으로 전대협을 이끌어갈 한영대 총학생회장 임종석군이 전대협전군가를 힘차게 부르고 있다.

완란한 동지들이여 우리에게는 몇 년으로 다할 길은 없습니다.
내일모레 당장 다다를 데가 한반도의 어디에도 없습니다.
작은 땅에서 길은 가장 먼 길입니다.
몇십년을 걸어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몇십년 몇백년이 걸리는 먼 길뿐입니다.

동지들이여 우리에게는 몇 년으로 최단거리로 마칠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예 끝없는 길입니다.
가다가다 어쩌다가 해골하나가 안 내자인 초토도
산님과 불건너 띄약발 벌판도
그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동지들이여 때로는 주저앉아버리고 싶으나 이윽고 등짝세워
또다시 먼 길 내자식의 길까지 가야합니다.

(고은의 「먼길」중에서)



▲조선대에 마련된 고 이철규열사의 분향소

▼ 지난 11일(목) 전대협 발족식이 열린 충남대는 대형 길게 그림과 각 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수백명의 풍물패가 장관을 이루었다.



특집 I

몇해 만에 광주 금남로에 왔습니다
그 싸움 그 참살이 지나서
밤에는 높다라이 네온사인인 돌고
거리와 사람들이 흥청대고 있었습니
다
충탄 자국때우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자정 무렵 흰색의 도청 건물도 떠오
르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나는 내 창자로 꾸르륵꾸르
륵 깨달았습니
다
여기 와서 산 놈들 허튼 수작하지
말것을
여기 와선 신소리 개소리 닥쳐야 할
것을

(고은의 「금남로」중에서)



▲전대협 출범식에 참가한 서원대학교 학생들은 신동대원들이 노래에 맞춰 순동화
를 하고 있다.

기획: 사진부



▲전대협 발족식에 참석차 충남대에 도착한 본교생들이 교내 선전전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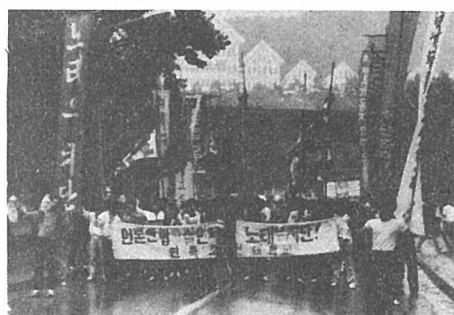
▼12일(금)조선대생들이 교내에서 고 이철규열사의 의문사에 대한 전상규명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 망월동에 위치한 각 지역에서는 학생들
과 시민들도 가득 메워졌다.

○—지난 80년 5월18일에, 광주 금남로가 피빛으로 가득
차 넘치던 그날이후 우리의 역사는 독재정권과 미제의 폭
압앞에서 수없이 왜곡되고 굴절되는 오욕의 길을 걸어
왔다.
때로는 명동, 부산, 충청도가 끓어오르는 민중들의
 분노로 메아리쳤고 민주쟁취의 그날을 맞이하는 듯도 하였
으나 오욕의 역사속에 깊이 뿌리박힌 독재의 아성은 더욱
더 강고한 탄압의 불을 휘두르고 있는 작금의 현실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철규동지의 쫓겨간 시체를 부둥켜 안아야
했다.
5월11일 광주는 동지의 사신(死身)을 지키고자 전국에서
모여든 수만명의 애국청년·시민들로 가득찼다.
본보에서는 5월11일12일 양일간에 걸쳐 조선대에서 전남
대 병원에서 이르도록 「이철규를 살려내라」고 끝없이 외쳐
대던 형식이 민주쟁취, 민중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하나된 열기로 떠오르기를 바라며 사진특집을 마
련한다. 또한 이땅에서 다시는 이철규동지와 같은 죽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편 집 자—



▲광주 시내 곳곳에 붙여있는 고 이철규열사의 시
신 사진들을 보고 시민들은 감명을 금치 못했다.

2979

애국시대 끝나지않았다

김 경 은
(서양·영어 89년 졸업)

「미국의 혁명,이라 불리우는 4월혁명은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민중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낳았고, 전경이 단절시킨 식민지 유산에 대한 정신적 욕망을 가져왔다. 소설 「애국시대」는 당시의 이러한 욕망을 배경으로 통혁당의 건설과 그 전개에 이르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4월 혁명에 이은 5·16 군사 쿠데타로 당시 애국민주세력은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애국시대」의 주인공 김강호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도를 모색하던 중, 민족의 권익을 대표할 강력한 당권설을 당면과제로 내세운다. 4월 혁명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김강호는 현상적인 대국세력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주체는 적 「미국」임을 직시하지 못했던 오류와 투쟁사실을 이끌어내면서 「당권설」에 투신하게 된다. 전국도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서로의 인식을 교환해 가면서 조직을 건설,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지역단위의 지하당원회들을 결성한다. 한편 대중 교양지 「월백」과 당내 교양지 「민주전선」을 발행하고, 「청담문화위원회」를 발족하게 이른다. 이후 64년의 대국적 「한일회담」, 반대투쟁, 67년의 부정부정 규탄투쟁, 같은 해의 일리·사도 내란, 반대투쟁을 조직, 지도하며 「통혁당」 건설한 김강호는 대국세력 기까지 투쟁의 고비를 넘겨주었다.

「애국시대」는 송가르게 전개되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과 그 주체들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인생관·세계관·대중관·투쟁관을 사실적이고 밀도있게 서술하고 있는 소설이다.

주인공인 김강호의 과거와 현재를 위해 평소 애독한 학생운동가 출신의 장로들을 찾아

당내의 기밀이 누설되었을 것을 염려한 당 간부들이 지하공작원칙상 조성을 박사를 해임할 것을 주장하게 되는 데, 김강호는 박사에 대한 애정과 신뢰로 박사를 그대로 유임시킨다. 결국 이 조치는 조박사의 야심과 사비·정치적 생명을 구했음은 아니라 그들이 의식하지 못했던

의를 지니고 있다. 4월혁명이후 통혁당이 건설되어 현상적 소멸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투쟁을 형상화한 작품은 전무하다시피 했으며 당시의 조직활동에 대한 자료도 부족한 현실에서 이 작품의 기록하는 바는 적지않다.

살상한 것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조직활동의 원칙과 조직성원들의 헌신성,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 등은 역사적 사건들을 재조명할 때 당시 사건들을 재조명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당시의 현실을 재조명하는 실재 인물 김강호의 지도력과 투쟁과 혁명에 대한 성숙한 문제의식과 감동을 자아내는데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단서 아득한 점이 있다면 그러한 감화를 일으킬 장면에 대한 상충묘사보다는 한 문장으로 단정하는 작가의 성숙한 문제의식과 독자들에게 그러한 감화를 느끼고 공감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주인공 김강호의 존재를 실재보다 높은 작가의 의도보다 자칫 약화시킬 수 있다. 차라리 주인공과 그 주변인물들에 의한 기록을 실적으로 편집하는 형식이 고려해볼만하지 않나한다.

이 작품을 무엇보다 60년대 상황을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의



통혁당 건설에서 검거에 이르는 과정 형상화 60년대 조직활동에 대한 자료로서 큰 의의

갔다 용건을 서면으로 남기게 된다. 그간두는 장면이나 전라남도 조직 위원장 최정도와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치밀한 탐색을 벌이는 장면들은 지하활동의 원칙이 얼마나 강요되었는가를 가늠케 해준다. 더불어 그들의 가슴 벅찬 동지로서의 만남은 독자에게도 특유의 전당원이 겸감대를 형성한다.

이와는 성질이 다른 대국적인 한 예를 들자면, 중앙정보부의 전라 함안군이 김강호가 대표로 있는 「현대경제 연구소」의 조성을 박사를 납치하여 고문하는 사건이 있다. 이 사건으로

적들의 뒷으로부터 당을 구해내려 한다. 이것은 적과 나에 대한 구분이 명확한 상태에서 민중과 의욕, 사랑과 증오가 변증법적으로 통일된 감격적인 장면이었다.

이 작품은 무엇보다 60년대 상황을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의

정년문화 대중제에 「지침이대원」(안내, 행사전행, 기관의 우리말)으로 참여하면서, 나는 대중제 결과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현안한 퇴직, 퇴직문화에 맞서 청년들의 뜨거운 피를 담아야 우리의 민족문화의 맥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온갖 장벽과 출세의 자유분방, 저조의 바리 냉개와 불변의 정기는 대학에서... 그러나 동양의대선으로 확립된 분위 속에서 극우세력의 위협마저 도사리고 있었다.

이런 우려를 하면서도 준비를 해나갔다. 후보가 일주일 전부터 이루어지고, 깃발·만장을 만들고, 동대문구청 직원과 경찰의 시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단이 꾸며졌다. 적강철, 대학생, 이런 고등학생 후배들과, 비자금을 몰라면서 뛰어다녔다. 손에 익지않은 말씨에 손가락을 펴고도 힘찬 투쟁가와

소설 「애국시대」는 단지 60년대에 그치지 않고 지금 80년대에 이르러까지의 「애국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에 감동과 재미, 조직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주는 흥미로운 책이었다.

구호로 불려버렸다. 드디어 개각의 열쇠는 가오게 된다. 그해 6월 6일이 넘어 7일이 되어야 마르크스 안 나고, 기껏 실천한 조판의 열을 케지 줄을 물었다. 난이 어찌될지 아보지 안보지 바꾸지 안나고 노대소리까지 중간에 끊기는 부도수가 많이 아니었다. 바로 옆에서 열리고있는 로보공회



퇴폐·외래문화의 산적지 대학로에서 통일원림 담은 청년문화 역량을 표출

「한일회담」 소리는 세련된 노레슬러로 남남하게 울려 퍼지는 데... 조국으로 통진 청년들의 첫발걸음이 위태위태한 순간이었다. 노래 투성이 끝나서야 조만간 들어왔다. 다음 순서로 나한 한 청년들(비밀)을 이끌어내 장부문지/ 찬조출연한 한 민가적 어머니들의 「이리나」 선창과 청년들의 후방은 첫날 가요제의 압권이었다. 이튿날은 오후 1시부터 행사

백여만부이상 팔리는 등 외국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남동명 82년5월)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 논쟁 -김석민 역음

신식민지적 종속악화에서의 개발도상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종속자본주의론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체계화 한 책이다.

변환론적 최대의 과제인 한 수 있는 「구설」의 건설을 위해 조직적 구심이 담아야 할 사상·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세경리본 83년8월)

심조기와 폭력 -A. 야코블레프 지음

「아메리카의 세기」, 「아메리카의 세기」라고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 주입 및 자국·타국에 대한 약탈, 폭력을 공화하고 있는 미국의 세계지배정세를 다양하게 서술한 책이다.

군국주의화, 해외주의, 인종주의, 부도덕과 위선의 정치, 부패 대한 탐욕 등으로 가득한 「미국」이라는 국가를 철저해 해부하고 있다.

(남동명 82년5월)

우리말의 쓰임새 (164) 총지못하다

〈문틀이 좋지 못하고 있지요-야구경기 해설중에서〉

이문장에서 문체는 상대명사(또는 형용사)인 「총다」의 전행형 「총지」와 「총지 못하다」의 전행형 「총지 못하고 있다」가 문법적인 문장이다.

연재소설 「내번째」

은 종 복 (동양·중국어4)

「이거요,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 다 못구만! 이거 몇 번 읽으시면 다 읽으니까요!」

교장은 손에 들고있던 유류수를 자판식에게 패스 위에 올려놓았다. 교사는 유류수에 손이 가지 않았다. 단지 교장의 심상을 파악하려고 하였던. 수확성에서 애써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유류수를 마셨다. 그녀의 모습은 흡사 교장의 비서와도 되는 듯했다.

「그대, 열두시 이후에는 야학의 문을 꼭 열었겠지?」

「네... 노력해 볼게요!」

교장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대답을 했다. 교사의 때에 는 능란한 말투로 모든 교사들을 압도하던 교장선생도 교장 앞에서 이렇게 무뎠다. 대국은 자신도 모르게 답답해 손이 가는 것을 억제했다.

교장은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편가 대대한 일이라고 생각난 듯 얼굴이 희어져 되 말을 했다.

「이런 경정교시에 전파로 모두 불을 학생이 있나?」

「아니요, 영의와 수확성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년 봄에 있는 전시에는 몇몇 불을 것같아요!」

교장선생의 말에 실망한 듯 교장은 야학 교무실을 두리번 보았다. 그 눈빛은 편가 불온한 문구로 찾았는 기세였다. 교장을 바라보는 교장은 야학으로 가지고온 교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교장을 보자 자신이 들고있던 교재를 덮어 버렸다. 교장 강의실에서 유류선이 보였었다. 그는 학교에서 쉬어가 있을 때면 언제나 창밖을 바라보다 그 날 있었던 시위에서 받았던 유류선은 야학으로 가져와서 교장은 교사를 들은이교 야학생활과도 같은 토론시간을 갖곤했다.



그의 옷에서는 아직도 최무가스가 불을 뿜어 나왔다. 교장은 잠시 코를 찜찜거리더니 영의선생이 앉는 것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장이 교사를 중에서 제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영의선생이다. 영의선생은 시위때문에 경찰서를 몇번 들어간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선드워한 장인 교장 귀에 그 소리가 들렸다.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다. 자신의 주머니로 운영되는 야학에서 노동운동이냐, 교장은 영의선생을 언젠가 한번 끝까지 버리고 버리고 싶었다.

태국은 출석부를 펼쳤다.

오늘도 동수는 나오지 않았다. 보통 1교시가 끝날 무렵이면 모였어야 오던 동수가 이틀째 오지 않았다. 결석이라고는 모도 안되었다.

교장선생은 태국을 펼쳤다.

「다산선생님! 선생님이 동수님께 다녀오실래요. 동수는 선생님을 제일 따르잖아요!」

독 립자는 말에 태국은 「예」하고 대답했다. 동수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전에 동수가 공장에서 쫓겨났을때 태국이 한 일은 단지 동수의 어깨를 감싸주는 것 밖에 없었다. 무뎠게도.

태국은 교무실에 걸려있는 그림자를, 야학운영의 그림자를 보지않고서 시선을 창밖으로 주었다. 하늘은 어둡게 내려앉았다. 간혹 별들이 얼굴을 내밀기는 했어도 금방 사라져버렸다. 드로워는 차들이 길주를 했다.

태국은 질주하는 차에서 뛰어든 자신을 그르며 보았다. 아무런 고통도 없이 사라지는 자신을.

2교시를 알리는 종이를 울렸을때 태국은 화들짝 놀랐다. 출석부와 교재를 펼쳐서 교실로 들어갔다. 열여섯명의 학생들이 앉아있었다.

그런데 빈자리. 동수가 앉아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던 그가 없다.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아니면 교장이 경영하는 봉제공장에서도 재봉을 못하는 것일까. 동수애기가 나오자 성급히 나갔던 교장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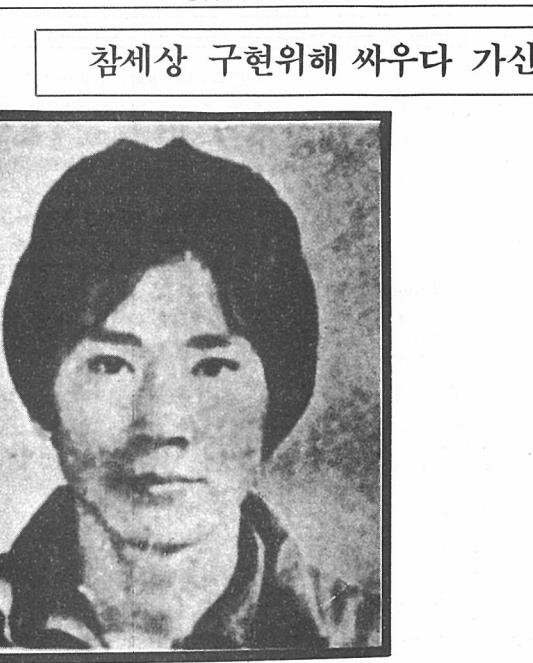
결국 동수는 자신의 자유로움을 어디서 찾아야 하나.



그 음악은 제법 듣지 않아도 DJ. 잊었던 그 가리가 생각나요 DJ.

지상전람회 주원수의 「보통고릴라」중에서

참세상 구현위해 싸우다 가신 이철규열사의 뜻을 기립니다



차디찬 감방속으로나, 뜨거운 불길속으로 사랑하는 동지들을 수없이 보내면서 우리들은 끝없는 나락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밤이슬 깊도록 기울이는 술잔속에서 패배의 고통을 참인간 세상 만드는 내일로 뒤엎으며 그렇게 우리는 어제와 오늘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지의 주검앞에서 슬픔은 분노가 되어 살아오르고 분노는 증오의 투쟁을 일구어 냅니다.

사랑하는 동지여 우리의 증오는 터져오른 그대의 살을 모아 민주의 등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등불로 암흑의 구석구석에 불을 놓아 참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 사랑하는 동지여.

의 대 학 보